

## 2015년 임금단체교섭 임기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측의 현대차와의 차별화 음모! 3만 4천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분쇄한다!

15년 임투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으로 인해 노사자율교섭은 침해되고 참여하게 대립하는 형국으로 변질!

지난 13일(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했다. 핵심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사측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삭감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해진다. 노사정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100% 수용한 야합문서라며 강하게 비판하

며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러한 외부적 노정간 갈등 국면에서 기아차의 15년 임금 단체교섭은 노사간 자율교섭은 퇴색하고 노동개혁에 따른 노사간 입장차에 대립과 투쟁하는 상황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측,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내세워 현장과 노동조합의 양보만 바라지 말고 경영무능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측은 15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 경영의 부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현장과 노동조합의 희생과 양보

만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단체교섭에서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별별 이유를 달았다.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경쟁력 약화를,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 인상과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업살을 보이고 있다. 금년 또한 러시아·중국의 경제침체, 환율상승, 엔저, 수입차와의 경쟁력에서 밀려 내수판매가 부진을 보이자 또다시 경영여건의 어려움을 들고 나왔다.

**사측, 매년 별별 이유를 대며 경영여건의 어려움 내세워 현장에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수출 차의 결재통화 다변화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15년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올해 원/달러 전망을 1,050 원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 이르고 있다. 기아차는 환율이 10원 상승시 매출은 1,200억, 영업이익은 1.3~2.7% 증가하는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5년 사업계획서 보다 매출은 1조 8,000억, 영업이익은 19.5~40.5%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환율, 엔저로 인해 경쟁력이 어렵다는 주장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15년 임투는 대내외의 급격한 정치·경제의 변화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나 노동조합은 현대차와 성과차별 철폐, 8+8/월급제 완성,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쟁취 등을 위해 현장을 하나로 조직해 3만 4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9.16일(수), 15 임투 승리를 위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 총회에서 압도적 가결을 통해 15 임투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쟁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저지, 양재동 본사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와의 성과차별을 획책하려는 기아차 경영진의 무능경영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양재동 본사가 기아차 15년 임금단체교섭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자율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측의 교섭행태에 철폐를 가해야 한다. 9월 16일(수), 15년 임금 단체교섭의 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 압도적 가결을 통해 15 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3만 4천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경영실적으로 차별화 획책하기 전에 현대차와 동일한 신차종 배치!

#### 디자인 차별금지! 상용차 공장신설! 인원 충원 해소하라!

승용, RV 주력 생산판매로 이룬 기아차의 성과를 폄하한다면 15년 임금단체교섭은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기아차는 19개 차종, 현대차는 34개 차종을 생산·판매하는 등 기아·현대차의 차종차별은 현격한 수준이다. 승용, RV 등의 주력 생산 판매로 거둔 기아차의 경영실적은 3만 4천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일궈낸 경영성과이

다. 차종의 차이는 등한시하고 단순한 경영실적을 비교해 현대차와의 차별화를 획책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양재동 본사와 기아차 사측은 단순한 경영실적으로 차별화를 획책한다면 15년 임투에서 3만 4천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현대차의 실적은 기아차보다 월등

한 차종과 인원이다. 기아차에도 현대차와 동일한 차종과 인원이 동반된다면 1인당 생산대수가 현대차보다 많은 기아차의 생산량을 볼 때 경영실적은 현대차를 능가할 것이다. 양재동 본사와 기아차 사측은 현대차와의 실적은 이유로 15년 임투에서 기아차의 차별화를 획책하려 한다면 3만 4천 조합원의 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 기아차/현대차 생산 라인업 현황

구분	기아차	차량 현황	현대차	차량 현황
승용	7개 차종	소형 : 모닝, 프리이드 중형 : K3, K3플, 중형 : K5, K7 대형 : K9	12개 차종	소형 : 엑센트, 중형 : 더뉴이벤트, 이반떼쿠퍼, i30, 벨로스터 중형 : 쏘나타, i40, 그랜저 대형 : 아슬란, 제네시스, 제네시스쿠퍼, 에쿠스
전기차 연료전지차	3개차종	K5, K7하이브리드, 쏘울전기차	3개차종	쏘나타, 그랜저 하이브리드 투싼수소연료전지차
RV	7개 차종	레이, 뉴키넥스, 쏘울, 스포티지R, 뉴쏘렌토, 카니발R, 모하비	5개 차종	투싼, 산티페, 그랜드스타렉스, 맥스쿠루스, 베라크루즈
상용	1개 차종 (27개 사양)	봉고III	5개 차종 (167개 사양)	포터II, 마이티, 메가트럭, 트라코엑시언트, 특수트럭
버스	1개 차종 (17개 사양)	뉴그랜버드(45인승)	6개 차종 (10개 사양)	카운터, 에어로타운, 그랜시터, 슈퍼에어로시티, 유니시티, 유니버스
대형 특정차	기아 중대형 차종 없음		5개 차종 (25개 사양)	중대형 탐차, 중대형 환경차, 중대형 건설차, 중대형 탱크로리, 중대형 전문수송차
총계		19개 차종		36개 차종

### 2015 임투 현대차와의 차별철폐 핵심 요구안

#### 기본급 인상 및 정당한 성과 배분 요구

- 기본급 159,900원 (기본급 대비 7.7%)
- 성과급 영업이익의 30% 지급 요구
  - 2014년 영업이익 2조 5천 7백 2십 5억의 30% 지급요구
  - 2014년 영업이익의 30%(우리사주 무상주출연 포함) 조합원(전종업원) 및 사내하청분회 조합원(전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단, 영업이익은 매년 성과급(100%) 지급시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요구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
  - 상여금 정률(750%) + 250만원 통상임금 적용
  -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지급시 가산 지급
    - 휴일, 연장, 심야수당, 년월차 수당 증가
- 사측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
  - 법정수당 비용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할 것임
    - 휴일·연장근무 감소로 근로시간 단축 이어짐

#### 8+8 / 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

- 8+8 조기 시행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심야 노동 철폐로 건강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안정적인 월급제 임금체계 완성
  - 전직군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의 26% (41.6hr) 적용
  - 더 이상 잔업에 얽매는 임금구조 탈피
  - 안정적인 임금체계 완성으로 물량 변동시 임금손실 방지

#### 사내하청 신호봉표 재원 마련 요구

- 재원 마련 후 신호봉표 제정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반영
- 신호봉표 적용시 공평이동에 따른 시급별 차이 금액만큼 직무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한다.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김종석입니다.

계절은 백로(白露)를 지나 코스모스가 살며시 가을을 알리기 위해 향기를 뿌리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대차와의 차별철폐 반드시 분쇄해 3만 4천 조합원동지들의 정당한 요구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화), 2015년 임금 단체교섭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4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측은 15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내세워 실적에 맞는 성과배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현장과 노동조합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따른 성과배분을 주장하면서 기아차 자율교섭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양재동 본사의 지침에 따라 현대차와 차별화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현대차와

의 차별화를 획책한다면 3만 4천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하도록 할 것입니다.

15년 임투가 예년보다 늦어졌지만 노동조합은 15년 임투를 짧고 강하게! 진행해 3만 4천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3대 집행부 임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8+8/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3월, 8+8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잔업과 특근에 얽매이는 임금체계를 탈피해 물량변동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계에서 심야노동을 축소해 건강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 노동의 선순환 기능을 강화해 생산성이 개선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8+8 교대제 안 관련 현장에서 우려하는 휴일축소, UPH-UP를 최소화 하고 전환배치 불가, 외주화 불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넥(Neck) 공정의 설비 개선투자나 인원투입 등 핵심요구를 쟁취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측은 '총액임금'범위 내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이 아닌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과에 따르면 기아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양재동 본사와 현대차의 눈치를 보며 지금껏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노사공동위원회에서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초과하거나 그간 현대차보다 우위에 있는 단협 사항을 축소한 임금체계개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5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상여금 750% 중 45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는 부과금(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총비용 동일'의 현대차의 임금체계개선을 설명했으나 노측위원들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여금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기아차에 적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거부하고 기아차만의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더 이상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양재동 본사와 현대차 눈치를 보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 회사의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낮에는 무더운 날씨, 아침엔 쌀쌀함이 느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부장 인사말

# 무능한 경영진 현대차와 차별적용 주장 자격없다.

## 기아차/현대차 간 신차종/디자인/투자 차별 선 해결하라!

기아차 국내의 공장 현대차에 비하여 차종/디자인/투자등 차별이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언제까지 기아차를 죽이는 경영을 할 것인가? 기아차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하였다. 현대차와 동일한 차종배치와 라인인설, 인원투입후 실적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차별을 얘기해야 한다. 경영진의 경영실적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사측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영실적에 따른 기본급/성과급등의 차별 적용을 주장한다. 경영진은 그런 주장 할 자격 없다. 기아차의 잘나가던 봉고버스, 라이노 트럭등 상용차 다 단산시키고 현대차 독과점을 만들어 주었다. 2003년(17대 집행부) 노동조합에는 상용차 합작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합의를 작성하고 사기를 친 것이다.

구분	기아차 요구			
신차종	*현대차 제네시스급 차종 요구(중산층 고객 차종) *디젤승용차 투입 요구	*15톤이상 트럭, 소형 버스, 특장차, 시내버스 차종 투입 요구 *수소연료전지		
디자인	*현대차에 비하여 디자인 차별 재시작 -2009년부터 K5 출시 이후 현대차보다 차종이 많이 팔리다 보니			
기술개발 투자비	*설비투자, 작업 및 환경개선 투자비 차별			
	구분	기아	현대	문제점
	설비 투자	가장 저렴한 장비 구입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설비 구입	기아차 설비는 낡은 고정등으로 생산성 저하 → 수리비, 보원투자비 증가
작업 및 환경개선투자		수천억 투자 - 15년 5,000억	직업성 및 환경개선 투자 미미함	
*설비투자시 저임할 방식 폐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설비 구입(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 *작업 및 환경개선 투자로 기동 및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 기아차는 현대차에 비하여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영실적을 달성하였다.

노동조합은 노사신뢰를 위하여 생산과 신차개발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특히 판매/정비 조합원들은 고객들의 최일선에서 현대차와 비교하여 부족한 차종과 사양등으로 판매하고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였다. 공장 또한 현대차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싸구려 설비로 어렵게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한동안 환율이 떨어져 금방이라도 회사가 망할 것처럼 위기조장을 하더니 환율이 1200원을 넘었는데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다. 기아차는 현대차에 비하여 사측이 얘기하는대로 생산성이 앞서고 있다. 그만큼 조합원동지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더 이상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나아가 현대차와 차별적용 확채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차별화 적용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 기아차/현대차 연도별 실적 현황(K-IFRS:개별)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K-IFRS(연결)	K-IFRS(개별)	K-IFRS(연결)	K-IFRS(개별)	K-IFRS(연결)	K-IFRS(개별)	K-IFRS(연결)	K-IFRS(개별)			
기아차인원		32,714	32,407	32,407	32,756	32,756	33,576	33,576	34,112	34,112		
현대차인원		56,556	56,691	56,691	59,831	59,831	63,099	63,099	64,956	64,956		
생산대수 (국내공정)	기아차	1,206,754대	1,330,754대		1,300,502대		1,313,449대		1,429,768대			
	현대차	1,730,628대	1,892,254대		1,905,261대		1,850,727대		1,876,428대			
매출액	기아차	23조 2,614억	43조 1,909억	27조 7,423억	47조 2,429억	28조 0,079억	47조 5,979억	28조 3,326억	47조 0,970억	29조 8,500억		
	현대차	36조 7,694억	77조 7,979억	42조 7,741억	84조 4,697억	43조 1,624억	87조 3,076억	41조 6,912억	89조 2,563억	43조 0,458억		
인당 매출액	기아차	711억	13,33억	8,56억	14,42억	8,55억	14,18억	8,44억	13,8억	8,7억		
	현대차	6,50억	13,72억	7,55억	14,12억	7,21억	13,84억	6,61억	13,7억	6,6억		
인당 생산대수	기아차	36.8	41		39.7		39.1		41.9			
	현대차	30.6	33.3		31.8		29.3		28.8			

기아차/현대차 인원 연도별 비교



기아차/현대차 국내공장 생산량 비교



기아차/현대차 연도별 매출액 비교



기아차/현대차 인당 매출액 비교



기아차/현대차 인당 생산대수 비교



\* 현대차 시내하청 인원 제외 - 포함시 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대수는 하락

### 기아차지부 역대 임단투 진행 결과 종합 비교

구분		21대 집행부			22대 집행부		23대 집행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영실적 (개별기업)	매출액	18조 4,157억	23조 2,614억	27조 7,423억	28조 0,079억	28조 3,326억	29조 8,500억
	영업이익	1조 1,445억	1조 6,802억	1조 9,071억	1조 6,453억	1조 4,816억	1조 4,350억
기본급	현대차	동결(호봉승급분 30,620원)	79,000원	93,000원	98,000원	97,000원	98,000원
	기아차	동결(호봉승급분 20,944원)	79,000원	90,000원	98,000원	97,000원	98,000원
	차이	-9,676원	무	-3,000원	무	무	무
	사내하청	동결	78,000원	90,000원	98,000원	97,000원	98,000원
	정규직대비	-20,944원(수당 신설)	98.7%	100%	100%	100%	100%
성과/격려급	현대차	300%+500만 +무상주40주	300%+500만 +무상주30주	300%+700만+무상주 35주 *임금체계 변경 약 1년간 1천만원 인상	500%+960만원	500%+870만원	450%+960만원
	기아차	300% + 500만	300%+500만 +무상주120주	300%+700만+무상주80주	500%+960만원	500%+870만원	450%+960만원
	차이	무상주(약480만원)	무	무	무	무	무
	사내하청	300% + 325만	300% + 350만	300% + 490만	500%+770만원	500%+700만원	450%+716만원
	정규직대비	65%	70%	70%	80%	80%	80%

※ 2009년 동결로 조합원 손실 금액 (14년 기본급 98,000원 인상기준 - 호봉승급분 제외)

구분	첫해 손실금액	5년차 (퇴직금포함)	10년차 (퇴직금포함)	15년차 (퇴직금포함)	20년차 (퇴직금포함)
기본급 동결시 (호봉승급분 제외)	2,415,771원/년	13,488,054원	26,774,794원	40,262,848원	53,750,901원

## 기아차가 현대차에 비하여 4.1% 더 받는다는 양재동 경영진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노동조합간 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다.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동일한 기본급 인상시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2012년 8+8생산량 보전시 생산을 현대차보다 많이 해주고 근무형태 변경수당을 2교대자 기준 1728% 더 보전 받아 임금인상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양재동 경영진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억지 부리지 말아야 한다. **기아차는 그만큼 인원투입 없이 작업시간 추가확보와 UPH UP를 통하여 생산량을 만회해주고 임금 보전을 정당하게 받았다. 양재동 경영진은 억지 주장하지 마라.** 기아차는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휴일이 현대차보다 더 조정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보전을 선택하였다. 현대차 경영진도 똑바로 인지하여 현대차 단체교섭에서 차별을 주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 기아차 단체교섭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삼가고 현대차 단체교섭에서 기아차보다 임금체계를 앞지르는 생산량 만회방안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구분	기아차			현대차		
	생산량 만회	작업시간 추가확보	임금보전 (근무형태변경수당)	생산량 만회	작업시간 추가확보	임금보전 (근무형태변경수당)
주간교정자	*107만대 → 125만대 (+18만대)	200hr	9.587%	*143만대 → 161만대 (+18만대)	185.8hr	5.24%
2교대자	*9.7% UPH UP		7.368%	*7.5% UPH UP		5.64%



## 자율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 양재동 최고경영진 퇴진! 8+8 및 월급제 완성!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현대차와 차별철폐! 정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로 2015년 임투 승리하자!

9월 16일(수) 정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2015년 요구안 쟁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들의 힘으로 반드시 2015년 임투를 통하여 현대차와 차별화를 막아내고 8+8 교대제 및 월급제 완성했습니다. 나아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을 통하여 임금체계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사측은 일관되게 "어렵다! 비용이 상승되어 수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안전 철회를 요구한다! 수용할 수 없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실한 교섭만으로는 우리의 요구안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오만한 사측에게 철퇴를 가하고 요구안 쟁취를 위하여 힘찬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정권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도입!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다.

### 대기업의 공간에 수십조의 돈이 쌓여 있다. 공간을 열어 공장을 지어야 청년실업이 해소 된다. 헛발짓 하지 마라!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점 사측도 알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해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청년퇴직자 자리에 인원충원한다고 한다. 그동안 단협에 의거 정년퇴직자 퇴직전 1개월 이내 채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고 버티던 사측! 2015년 두고 볼 것이다. 정년퇴직자 자리를 제외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일할 공정이 없는데 채용이 가

능한 얘기인가?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기아차에 적용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 2015년 임투가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은 추석전 타결을 원하고 있다.

## 현장조직의 15 임투는 관심없고 24대 임원선거 돌입 행위는 조합원들 피해를 가중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2009년 해를 넘은 임투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아픔의 역사가 있다.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견그룹들은 벌써 임

원선거 후보를 선출하고 현장에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2015년 임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선거에 몰입하고 조직간 선명성을 경쟁하는 행태는 결코 3만

4천 조합원들을 진정으로 받들고 생각하는 활동이 아닐 것이다. 15임투가 무르익고 있다. 임투가 종료되고 선거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 사측에게 경고한다! 24대 임원선거 조기시행 조장하며 2015년 임투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노무관리 행태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2009년 노동조합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8+8 교대제 및 월급제 요구안을 가지고 역대 가장 많은 파업을 전개하며 투쟁할시 사측은 임기문제를 악용하여 사측 교섭단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교섭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집행부를 조기 사임시키고 본인을 입맛에 맞도록 21대 임원선거를 진행하여 차기 집행

부와 교섭을 진행하여 기본급 동결, 현대차와 차별(기본급 1만원, 성과급 480만원)을 받는 합의를 하였다. 결국 사측은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음해 1월말까지 투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사측에 항복하는 합의를 하였다.

사측이 2009년을 상기하며 2015년 임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측에게 경고한다. 경영진은 착각하지 말라. 임투가 늦어질수록 노동조합의 투쟁력은 불꽃처럼 살아날 것이다. 2009년 망상에서 깨어나라. 노동조합은 명운을 걸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 사측이 악용하는 임기 2년차 집행시 임기문제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한다. 임투 시기와 맞물린 임기 종료문제 차기 집행부 제도적 보완되어야.

2009년부터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가 9월에서 10월달에 마무리되고 있다. 또한 매년 임금 및 단체교섭 투쟁이 하기휴가를 넘어 추석전까지 또는 추석을 넘기는 교섭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2년차 임투 진

행시 집행부 임기 문제와 연계되어 사측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는 규정에 한달전에 임원선거를 진행하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임단투가 종료되지 않으면 임단투 종료후에 선거를 진행하도록 관례화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사측이 악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아차지부도 사측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8+8근무형태 변경시 생산량 125만대 보전과 가동율 기준 관련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홍보는 중단해야 한다.

### - 본인들이 집행할 때 (21대)는 가동율 95%에 124만대 합의했다 -

생산량 보전 대수를 가지고 급속 의힘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2012년도 8+9 합의할시 125만대 보전해주고 임금보전을 다 받았다.

UP되면서 증산 투자와 인원투입된 2개지회 566명을 다시 빼내라는 주장과 다름바 없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본인들 조직과 동등으로 집행(지부/지회)을 하고 있다. 기아차지부가 바보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홍보하라!

본인들 집행할때는 왜 95%로 사측과 합의를 했는가? 본인들도 실제 가동율은 97% 였는데 95%로 생산량 산출하여 124만대 합의를 작성하였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125만대는 이미

또한 125만대에서 현재 133만대로 증산된 것은 본인조직이 포함된 지회에서 25% UPH UP을 통하여 인원 419명을 채용하고 증산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 보전 대수가 된 것이다. 125만대를 주장하면 그이후 UPH

### 생산능력 변동 현황(완성차)

연도	구분	UPH	생산능력
'09년 (김종석지부장)	105만대 (회사 최종제시)		
	당시 지회장, 대의원 교섭위원 반대로 합의불가		
'11년 (김성택지부장)	125만대	실가동율 96.8%	생산량보전 합의가동율 95%
'12년 (배재경지부장)	125만대	실가동율 91.7%	생산량보전 합의가동율 95%
'14년 (김종석지부장)	133만대	실가동율 94.8%	생산량보전 산출기준가동율 95%

연도	구분	UPH	생산능력	채용	투자비
'10년	관주1	37.0 → 42.0 (9월)	+2만대		
	관주2	35.0 → 42.0 (4월)	+3만대		
'11년	소하1	31.5 → 34.0 (9월)	+1만대		
	화성3	40.0 → 44.4 (10월)	+2만대		
계		143.5 → 162.4 (+18.9 UPH)	+8만대		
'13년	관주2 (박병규지회장)	46.1 → 58.0 (7월) (25.8% UPH UP)	+4만대	419명	2,924 억원
	소하1	39.6 → 47.7 (8월)	+3만대	117명	293억원
'14년	관주3	23.1 → 25.1 (2월)	+1만대	30명	138억원
	계		108.8 → 130.8 (+22 UPH)	+8만대	566명 3,355 억원

## 2015년 임투 노사간 쟁점 사항

구분	노동조합 요구안	사측 입장													
기본급	기본급 159,000원 인상	기본급 동결 - 대내외 경영 환경 어려움 핑계													
성과급	2014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대폭 축소													
8+8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요구	1) 8+8 근무형태 변경 - 생산직(교대자, 주간교정자), 공장부문 일반직 - 2016년 1월 1일부터	회사측 생산량 민회시 임금보전 수용 입장 - 주야간 추가 연장 작업 시행 주장													
	2) 연장근로수당 변경으로 월급제 수당 26% 적용 요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요구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산직</td> <td>교대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7,368%</td> <td rowspan="2">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26%</td> <td rowspan="2">통상외수당</td> </tr> <tr> <td>고정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9,587%</td> </tr> <tr> <td>기술직</td> <td>정비능력향상수당 통상급 9,587%</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요구안	비고	생산직	교대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7,368%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26%	통상외수당	고정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9,587%	기술직	정비능력향상수당 통상급 9,587%		
	구분		현행	요구안	비고										
생산직	교대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7,368%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26%	통상외수당												
	고정자 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급 9,587%														
기술직	정비능력향상수당 통상급 9,587%														
3)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요구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요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생산, 기술직</td> <td>통상임금+연장 OT 30HR</td> <td>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td> </tr> <tr> <td>일반직</td> <td>통상임금+통상임금 26%</td> <td>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td> </tr> <tr> <td>영업직</td> <td>통상임금+통상임금26% +상여보조금</td> <td>근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상여보조금</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비고	생산, 기술직	통상임금+연장 OT 30HR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	일반직	통상임금+통상임금 26%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	영업직	통상임금+통상임금26% +상여보조금	근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상여보조금		
	구분	현행	비고												
	생산, 기술직	통상임금+연장 OT 30HR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												
일반직	통상임금+통상임금 26%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													
영업직	통상임금+통상임금26% +상여보조금	근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통상임금 26%)+상여보조금													
4) 년월차 지급기준 변경 요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생산, 기술직</td> <td>통상임금의 150%</td> <td>(통상임금+통상임금26%) X150%</td> </tr> <tr> <td>일반, 영업직</td> <td>(통상임금+통상임금26%)X1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비고	생산, 기술직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통상임금26%) X150%	일반, 영업직	(통상임금+통상임금26%)X150%						
구분	현행	비고													
생산, 기술직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통상임금26%) X150%													
일반, 영업직	(통상임금+통상임금26%)X150%														
5) 심야보전수당 변경 요구 시아시간 감소분에 대하여 심야근로수당 비율로 환산하여 통상수당으로 전환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1) 상여금 적용 750% + 정액 250만원 통상임금 적용 요구 - 히기휴가시 30만원, 설날/추석 귀향교통비 160만원, 서울비 50만원, 유류티켓 10만원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다. 그러나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법정수당이 80% 상승함으로 현재 임금보다 상회하지 않도록 총액기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어 적용 하지는 입장 - 현재 임금체계를 근거법 기준으로 하향 시키지는 입장임													
	2) 적용 방법														
	(1) 상여금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이지만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2)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226hr으로 계산 요구														
	(3) 상여금 지급 계산은 1월 급여 기준으로 1년간 적용 요구														
	(4) 적용은 근무형태변경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재 및 각종 휴직수당에 적용														
(5) 적용시점 : 2013년 12월 18일															
(6) 위 기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추가 법정수당 지급요구															
휴일근로수당 합중 요구	토, 일요일 휴일근로 추가 합중 요구	*법개정시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요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토, 일요일 근로 합중율</td> <td>150%</td> <td>200%</td> <td>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해당</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요구	비고	토, 일요일 근로 합중율	150%	200%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해당					
구분	현행	요구	비고												
토, 일요일 근로 합중율	150%	200%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해당												

## 2015년 임투 진행 경과

NO	일자	세부 내용
1	7월 22일	* 2015년 임금인상 요구안 발송 - 기본급, 성과급, 근무형태 변경(8+8) 및 월급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등
2	8월 11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상건례 (소하, 본관 1층 대회의실) - 교섭위원 소개 및 인사
3	8월 13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2차 (소하, 본관 1층 대회의실) - 노동조합 임금요구안 설명회 진행 -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 관련 회사측 질의 및 노동조합 답변
4	8월 18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3차 (소하, 1층 대회의실) - 회사 경영현황 설명회 진행 - 노동조합 회사 경영현황 설명회 진행 후 질의 및 회사측 답변
5	8월 19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4차 (소하, 1층 대회의실) -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안(임금부분) 논의 ▶ 기본급 : 호봉승급분 제외 159,900원(기본급 대비 7.7%) ▶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 요구 ⇒ 보전, 주조 위험수당 확대 요구(금형기술 부, 프레스, 시설팀, 에너지 관리팀 등) ⇒ 서비스수당 13,000원 인상 요구 ⇒ 본인수당 9,000원 인상 요구(전직군 해당) ▶ 2014년 영업이익의 30% 지급 요구안까지 논의
6	8월 25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5차 (관주, 구연구 3층 대회의실) - 노동조합 임금인상 별도요구안 논의 ▶ 근무형태 변경 (8+8) 및 월급제 요구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요구 ▶ 휴일근로 수당 합중 요구
7	8월 26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실무교섭 1차 (관주, 구연구 3층 회의실) - 근무형태 8+8 변경 사업 진행 경과 종합 설명 및 논의 ▶ 년도별 근무형태 변경 이력 및 8+8 근무형태 변경 협의 진행 경과 설명 ▶ 동종사(현대차) 8+8 근무형태 변경 협의 진행 경과 및 제시내용 설명 ▶ 8+8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 논의 ⇒ 생산량 보전 방안 논의, 생산량 보전 대수 및 가동율 기준 논의
8	8월 27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실무교섭 2차 (관주, 구연구 3층 회의실) - 8+8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 2일차 논의 ▶ 생산량 민회 관련 중점 토론
9	9월 1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실무교섭 3차 (소하, 1층 대회의실) - 8+8 근무형태 변경 관련 3일차 논의 - 생산량 보전 관련 종합적인 토론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요구안 논의 ▶ 기아차 임금체계 현황 설명 ▶ 기아차 임금체계 구성 및 제반 사항 종합 설명 ▶ 기아/현대 임금제도 비교 ▶ 주요기업 통상임금 개선 사례 비교
10	9월 2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실무교섭 4차 (소하, 1층 대회의실)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요구안 2일차 논의 ▶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3차 제시안 설명 ⇒ 신 임금체계 도입 주요내용 설명 ⇒ 상여금 산입방식 및 비용 총림 유지 방안 ▶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약정항목 조정 ▶ 노동조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과를 존중하여 즉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요구 ▶ 회사측 경영력 핑계로 기아차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 주장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현재 고임체계는 경쟁력 상실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주장
11	9월 3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6차 (화성, 별관 4층 대회의실) - 실무교섭 1~4차 논의내용 보고 - 15년 임금인상 단체교섭 별도요구안 논의 ▶ 허성욱, 이용수 조합원 복직 요구 ▶ 손배,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요구 ▶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 ▶ 현대/기아 생산기술수당 동일 적용 요구 ▶ 의장수당 신설 요구 ▶ 장기부채자 정규직 총원 요구
12	9월 8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7차 (소하, 본관 1층 대회의실) - 기본급, 성과급 논의 ▶ 회사측 어렵다는 논리와 노동조합의 양보 주장 - 별도요구안 논의 ▶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요구안 논의 ⇒ 생산량 민회 방안 노사간 이견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요구안 논의 ⇒ 노측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은 법적인 사항으로 즉시 적용하라고 요구 ⇒ 사측은 인건비 증가 사유로 임금체계 전반을 하향시켜 총액임금기준으로 동일하게 하자는 주장
13	9월 9일	* 2015년 임금 단체교섭 본교섭 8차 (소하, 본관 1층 대회의실) - 별도요구안 논의 ▶ 휴일근로수당 합중 요구 ⇒ 사측은 법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 ⇒ 노동조합은 최근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이용수, 허성욱 조합원 복직 요구 ▶ 손배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 ▶ 현대/기아차 생산기술수당 동일 지급 요구 ▶ 의장수당 신설 요구 ▶ 장기부채자 정규직 총원 요구 - 2회독 완료로 회사측에 제시안 제출 요구 - 회사측은 좀더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 노측 교섭대표는 회사의 무성리한 교섭 태도를 질타하고 성의있는 교섭 촉구 후 차기 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교섭 마무리함

# 현장 의견그룹들의 24대 임원선거 올인으로 15년 임투를 힘들게 하고 있다!

## 09년 임금동결의 전철을 밟지 않고 3만 4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5년 임투 종료 후 24대 임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23대 집행부 임기는 10월 27일(화)까지 이나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9월 23일(수) 임원선거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15년 임금 단체교섭은 현재 본교섭 8차, 실무교섭 4차까지 진행되었다.

23대 집행부는 임기만료일 전까지 15년 임투를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으나 추석전까지 15년 임투를 마무리 못할 경우 15년 임투와 지부

24대 임원선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현장의 투쟁력을 하나로 모아 15년 임투를 쟁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24대 임원선거로 인해 현장은 온통 선거판으로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15년 임투는 자칫 09년도처럼 해를 넘기며 투쟁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도로 임투가 마무리 될 수 있다. 현대차와의

차별화를 막고 3만 4천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23대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의견그룹들은 3만 4천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안을 다루는 15년 임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24대 임원선거에 혈안이 되어 23대 집행부와 지부장을 비관해 제조직의 선명성만 부각시키

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지난 53년의 기아차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각 집행부마다 성과는 업연히 존재한다. 났다고 잊히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행사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기아차 노동조합을 올곧게 세우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09년 임금 동결로 조합원 임금 삭감과 현대와 임금 차별

21대 임원선거시에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87,000원 100% 쟁취하고 현대차와 차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되어 파업도 제대로 안하고 항복 임금 동결, 임금차별 수용

구분	21대 집행부			
	'09년	'10년	'11년	
기본급	현대차	동결(호봉승급분30,620원)	79,000원	93,000원
	기아차	동결(호봉승급분20,944원)(-9,676원)	79,000원	90,000원(현대대비 -3,000원)
	사내하청	동결	78,000원	90,000원
	정규직대비	-20,944원(수당 신설)	98.7%	100%
성과/격려급	현대차	300%+500만+무상주40주(480만원)	300%+500만+무상주30주	300%+700만+무상주 35주 *조정근로시간 226hr 적용, 년월차 150% 적용, 상여금 전입 30시간 적용(약 1천만원 인상)
	기아차	300% + 500만	300% + 500만 + 무상주120주	300% + 700만 + 무상주80주
	사내하청	300% + 325만	300% + 350만	300% + 490만
	정규직대비	65%	70%	70%

###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조합원 피해 가중, 변호사 배만 불러줌

1. 무분별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소송 진행으로 조합비 남발 (패소)

구분	총액	변호사비	소송비(인지대등)	패소로 상대변호인비용 부담
금액	45,953,270원	20,000,000원	4,285,440원	21,667,830원

-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피같은 조합비 4천 6백만 원 날림
- 새날 법률사무소(김기덕 변호사)만 배불려줌

2. 조합원들 속여서 변호사 배만 불러 (통상임금 복지성 5가지 패소로 청구 항목 변경)

- 조합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 이기지도 못하는 소송 제기

- 1) 통상임금 해당 유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상여금을 제외하고 복지성 5가지항목 통상임금 체불 청구 소송 제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복지성은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 해당 무(無)
  - 복지성 전체 패소에 따른 통상임금 체불 청구 소송비용 증가와 변호사 배만 불러 줌

구분	총액	변호사비	소송비(인지대등)	비고
금액	2,196,400,000원	1,235,475,000원	960,925,000원	

2) 새날법률사무소(김기덕), 육대용 변호사 등 변호사 전문화적인 12억 3천만원 수입료 챙김

**-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변호사비를 1심도 안끝냈건만 2심, 3심비용까지 선 지불했는가?**

- 보통 상식으로는 2심 항소하면 비용을 거출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1심 계약 후 지급
- 깨끗하다면 새날 법률사무소가 2심, 3심 변호사 비용 돌려주어야 한다.

- 3) 결론적으로 5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복지성 5가지는 패소로 인정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청구 취지 변경
  - 복지성으로 거출한 조합원 8만원 사기건 부분에 대한 반성과 3만 4천 조합원들에게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
  - 소송과 관련 일언반구 할 자격 없어

### 타임오프 수용으로 전국노동계 및 기아차 노동조합 어려워짐

2010년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수용으로 전국 중소영세 노동조합 영향 미쳐...

- 1) 2010년 타임오프 수용으로 기아차지부가 모범 사례가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강하게 위축되어 복수노조등으로 다수 사업장이 박살남
- 2)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지킨다는 투쟁을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함께 강력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해놓고 무정의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을 지키지 못함 (21일 만의 무정의 교섭으로 마무리)
- 3) 기아차도 대의원 조합활동시간 축소, 소비조합 반납, 준전일자 축소, 전일자 임금 미지급, 조합비 인상등 조합원들 피해를 엄청나게 가중시키고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현장 권력을 죽인 집행부

### 조합원 72%가 찬성한 런닝메이트 복원 반대 세력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런닝메이트 복원과 24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 1) 금속의 힘과 광주 현장연대는 런닝메이트 복원 반대를 천명하며 광주지회 조차도 총회에 비협조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72%가 런닝메이트 해야한다고 찬성하였다. 광주지회를 제외하면 85% 가까운 조합원들이 찬성한 것이다.
- 2) 24대 런닝메이트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해 연대하기 전에 런닝메이트제 반대에 대한 3만 4천 조합원들에게 통렬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 역대 지부 임원선거시 각 조직별 런닝메이트제 복원 공약

구분	주요 내용
20대 임원선거	금속노조 산별전환 후 기업지부 해소 시한에 맞춰 선거 진행 - 기업지부 해소 2009년 9월 / 임기: 2009. 01 ~ 09(9개월)
21대 임원선거	각 조직별 선거공약 - 전노회: 런닝메이트 복원으로 노동조합 안정 - 기노회: 런닝메이트 완전 복원, 지부 중심의 직할체계 개편 - 기노련: 금속노조 탈퇴 - 전민투: 지역지부 전환 반대, 런닝메이트제 복원 - 금속노동자의 힘·현장연대(광주): 기업지부 유지
22대 임원선거	각 조직별 선거공약 - 금속노동자의 힘·현장연대(광주): 1지부4지회 - 기노련: 금속노조 탈퇴, 위원장체제 복원 - 전민투: 런닝메이트 복원 노조체계 안정화
23대 임원선거	각 조직별 선거공약 - 기노회: 런닝메이트 복원 위해 당선즉시 총회 실시 - 민노회: 런닝메이트 복원 - 혁 신: 런닝메이트 복원

### 15 임투가 중요한지? 24대 임원선거가 중요한지? 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현장과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새희망은 광주입사비리로 17대 집행부를 총사퇴한 조직의 후신으로 3만 4천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현장의 투쟁을 조직해야할 엄중한 15 임투 시기임에도 24대 임원선거에 눈멀어 현장의 단결력을 모으려는 커녕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조직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지부장을 헐뜯고 15년 임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방해하고 있다.

현대차는 임기가 9월말이지만 임·단합 투쟁시기에는 선거란 맡은 꺼내지도 않는다. 더 이상 쥐짤도 아닌 권력탐욕으로 현장과 노동조합을 분열시키지 말고 53년 기아노동조합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중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중요한지 아니면 3만 4천 조합원들의 소중한 15 임투가 중요한지는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 제53-0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 안 건 토 의

- 1) 정의조정신청 결의 및 정의대책위원회 구성 건  
**결정내용: 만장일치 결의**
- 2) 기타토의  
결정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 파견일수 조정 건  
**결정사항: 규칙개정은 차기집행부에서 논의하며, 미지급 되고 있는 임금은 지급한다.**  
2. 금속노조 양우권, 배재형 열사 투쟁기금 모금에 관한 건  
**결정사항: 정의기금에서 15,951,000원 납부한다.**
3. 조합원 징계에 관한 건  
**결정사항: 사측에 징계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징계를 강행시 지부, 지회 상집건부, 대의원들과 함께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 공 고

**제 목: 2015년 임금인상 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정의행위 찬·반 투표 총회 소집 건**

기아자동차지부 운영규정 제17조(구성 및 소집), 제18조(총회의 기법), 제19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오니 헌법도 바림없이 전원 참석에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2015년 임금인상 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정의행위 찬·반투표 건
2.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 1차 근무자 [ 14:40 ~ 15:40 ]
  - 2차 근무자 [ 15:40 ~ 16:40 ]
  - 부재자 투표 9월 15일(화) 11:00분 ~ 20:20분
  - ※ 단락, 형미는 지회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3. 장 소: 각 지회별 기본 투표 장소(투표장소는 지회별 별도 공보)

2015년 9월 10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장 김종석